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상반기 기업 직접금융 기저효과로 감소

- 금감원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실적은 전년동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임.
 - 2010년 상반기 기업이 증권공모를 통해 조달한 직접금융의 총 규모는 62조 904 억원으로 전년동기인 70조 1,221억원과 비교해 11.5% 감소함.
 - 작년 상반기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회사채 발행 및 유상증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, 올해 상반기는 기저효과로 감소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임.
- 2010년 상반기 주식발행 규모는 기업공개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 규모가 감소해 전년동기대비 7.1% 감소한 4조 9,405억원을 나타냄.
 - 기업공개를 미루었던 기업들이 금년 주식시장 회복세로 기업공개를 활발히 추진함에 따라 기업공개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389.1% 증가한 2조 6,992억원을 나타냄.
 - 유상증자는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화되고 자금사정이 호전됨에 따라 수요가 줄어들어 전년동기대비 53.0% 감소한 2조 2,413억원을 나타냄.
- 2010년 상반기 회사채 발행금액은 일반회사채와 공모 ABS 발행이 기저효과로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1.8% 감소한 57조 1,499억원을 나타냄.
 -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우량등급 일반회사채 발행이 급증했고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상반기 일반회사채는 전년동기대비 30.0% 감소한 9조 4,808억원을 나타냄.
 - 공모 ABS도 기업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P-CBO* 및 S-CBO**의 발행 증가에 대한 기저효과로 상반기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5조 9,677억원을 나타냄.
 - 금융시장 안정으로 금융채에 대한 투자기피현상이 완화되어 금융채가 전년동기 대비 98.0% 증가한 13조 619억원을 나타냈으며, 은행채도 8.5% 증가한 16조 9,267억원을 시현함.

* Primary CBO : 다수의 기업이 신규로 발행하는 회사채를 증권회사가 총액 인수하여 SPC에 매각하고 SPC는 이를 기초로 채권담보부증권(CBO)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

** Secondary CBO : 기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채권을 기초로 채권담보부증권(CBO)을 발행하는 것

(2010년 상반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실적분석, 금감원 기업공시제도팀, 7/26)